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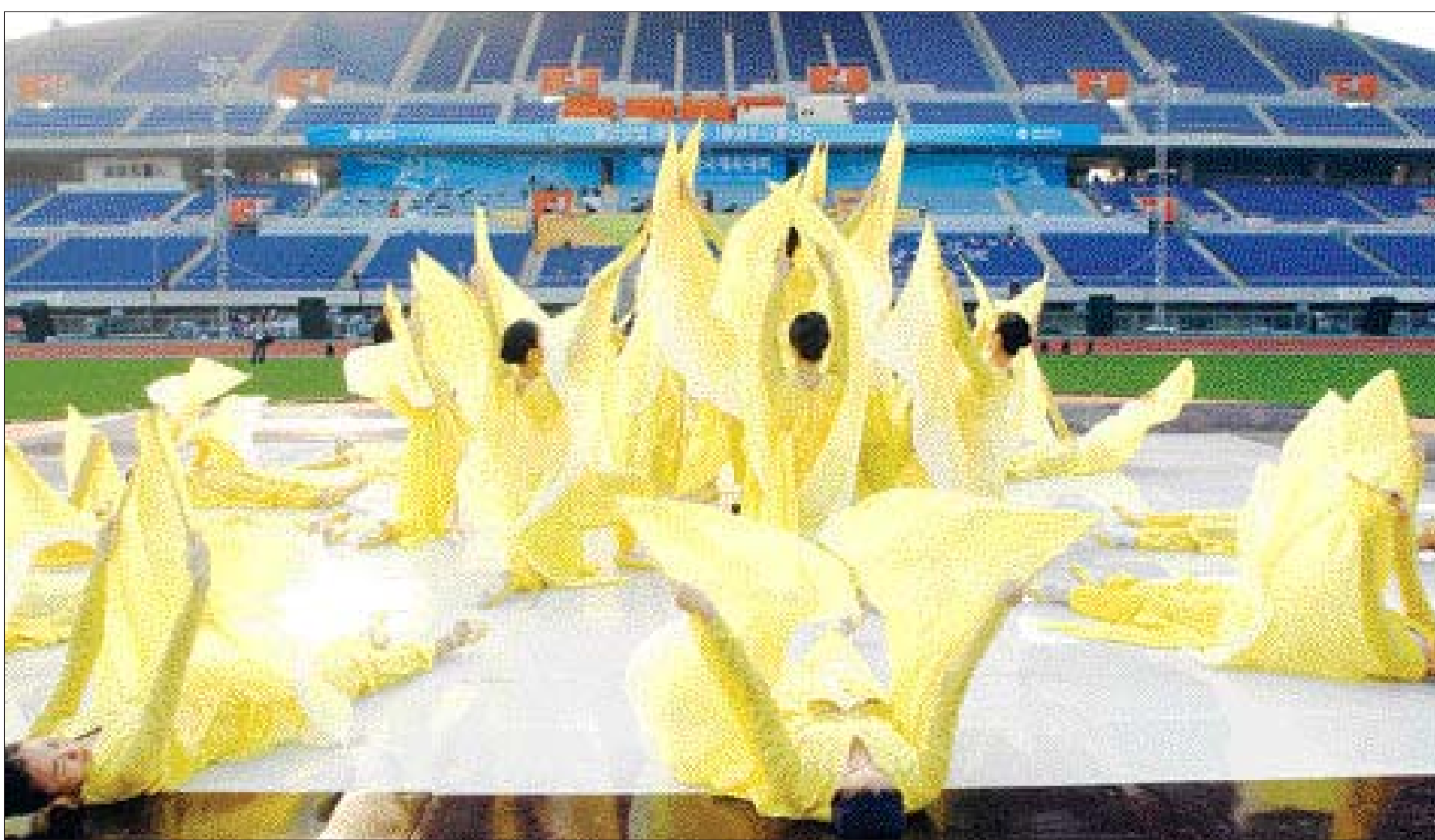
D-3

체전 100배 즐기기

<5> 광주·전남 전력은?

'야생마' 양용은 신나는 질주

비제이 싱에 1타 앞선 6언더파 단독 선두



4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식후행사로 펼쳐질 '색동마당' 리하설이 펼쳐졌다. 광주시립무용단과 동일전자정보고 학생들이 광주의 색인 오방색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 개최지 이점 살려 4위 도전
전남 8위 → 9위 한단계 하향조정

(작년 성적)

올해 국내 스포츠를 결산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8월 광주시 월드컵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단 3만여 명이 참가, 7일간의 열전을 벌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수단의 전력을 분석한다.

■ 광주

개최지 광주는 지난해 14위에서 10계단 상승한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 3위를 놓고 경북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일 수도 있다. 광주 체육회 관계자들은 내심 3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경북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 속내를 드러내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

광주와 경북은 5만점~5만1천점내외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광주는 14년만에 종합 3위를 기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마지막 1점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 선수 1천100명, 임원 352명 등 총 1천452명이 참가해 종합 4위를 가시권에 두고, 최대 종합 3위를 향해 쫓는다. 광주는 개최지 이점(기본점수 1만8천점 부여)에다 다수의 우수선수를 영입해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지난해말 창단한 광주시체육회 여자일반부 수영은 새로운 광주의 메달박스. 박경화·최수민·이은혜·선보경·이지선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여자수영팀은 지난해 김천 체전에서 금, 은, 동 1개 등 모두 15개의 메달을 따내 최고기량을 자랑하고 있어 경북과의 3위싸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에서는 남자 대학부 세단뛰기 김덕현(조선대)과 남자 일반 110m허를 박태경(광주시청)이 견제하고 메달발인 레슬링의 남고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남자대학부 조선대의 활약이 기대된다. 또 여고생 역사 이애리(광주체고)가 75kg급에서



광주시체육회는 4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사진 위) 전남도체육회도 이날 오후 12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결단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3관왕이 유력시 되고, 체조 여고부 박은경(광주체고)의 다관왕 도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자 종목 태권도는 남고, 남대, 남자일반과 여고, 여자일반부 모두 메달이 유력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승마 마장마술의 최준상(삼성전자 승마단)도 지난해 자신의 말을 타지 못해 놓친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철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개최

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 경북을 제치고 3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손님을 맞이 하는 입장에서 과열보다는 페어플레이를 펼쳐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지난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며 순위 경쟁을 펼쳤던 전남은 2005년 9위

에서 한 단계 도약한 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전남은 다시 한 단계 후퇴한 9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8위 수성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15위를 차지한 광주시가 개최지 이점을 안고 상위권으로 도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전남은 지난해(3만7천점) 보다 1천여점 하락한 3만6천점~3만7천500점대의 득점으로 부산, 인천, 대구와 치열한 한 자릿수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초반 득점폭이 큰 단체대진종목과 전력 하강이 눈에 띄는 고등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한 자릿수 수성이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 남고부 제철고와 핸드볼 여고 백제고의 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3, 은2, 동1개를 예상하고 있는 사이클에서 금메달 2개 정도를 더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하키 여고부 목포여고가 2회전에서 서울송곡여고를 꺾을 경우 은메달도 가능하고, 불림에서도 여고부 2인조, 3인조, 5인조에서 추가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이화은(전남체고)이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이 유력하고, 여고 송찬의(전남체고)가 장대높이뛰기에서 역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수영에서는 간판 이지은(전남제일고)이 자유형 400m, 자유형 200m에서 2관왕이 가능하고, 정다래(부영여고), 김달은(부영여고), 김고은(부영여고)이 황금역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레슬링과 유도에서도 전남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민 전남체육회 훈련부장은 "고등부의 전력하락과 단체종목의 대전 불운으로 힘든 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 한자릿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PGA 한국오픈선수권 1R

'야생마'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이 흑진주, 슈퍼 투키와 대결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

양용은은 4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파71·7천185야드)에서 열린 코오롱-하나은행 제50회 한국오픈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 65타를 쳐 단독 선두로 대회 2연패를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은 양용은에 1타 뒤진 5언더파 66타, 슈퍼 투키 김경태(21·신한은행), 허반기에 2승을 올린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은 공동 3위 4언더파 67타로 따라붙어 첫날부터 팽팽한 접전을 예고했다.

첫날 최대 관심사는 한조에 묶인 양용은-싱-김경태의 샷 대결. 특히 2일 한국에 도착한 뒤 프로암과 연습라운드를 빠지지 않고 소화한 싱은 여독이 풀리지 않은 약조건 속에서도 전반 경기를 주도했다.

10번홀(파4)에서 출발한 싱은 12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는 등 전반에만 버디 4

개를 쓸어 담으며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양용은은 첫번째 홀인 10번홀(파4)에서 보기를 받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11번홀(파4) 버디로 안정을 찾은 뒤 호쾌한 장타와 정확한 퍼트로 추격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전반을 2언더파 33타로 마친 양용은은 1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이고 2번홀(파4)에서는 티샷을 벅케로 빠뜨리기도 두번째 샷을 홀 1.5m 앞을 불인 뒤 버디를 잡아내 싱과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후반들어 싱이 3-4m 짜리 버디 퍼트를 잇따라 놓치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양용은은 6번홀(파4)과 7번홀(파3)에서 각각 3m와 4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 넣어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싱은 8번홀(파5)에서 1타를 줄인 것이 후반 유일한 버디였다.

전반에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인 김경태는 4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옆 10cm에 붙여 1타를 줄이는데가 하면 마지막 9번홀(파4)에서는 8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기분 좋게 첫날 경기를 마쳤다.

강경남도 버디 5개에 보기는 1개로 막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시즌 세번째 우승을 향해 출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비제이 싱 "한국골프 선수층 두터워졌다"

12년만에 한국골프대회에서 출전한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사진)이 한국 골프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4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에서 개막한 코오롱-하나은행 제50회 한국오픈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싱은 5언더파 66타로 1라운드를 마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뒤에도 바로 퍼트 연습장으로 달려가 연습을 하고 나서야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싱은 "10여년전 한국을 찾았을 때보다 코스 세팅도 훨씬 좋아졌고 선수층도 두터워진데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 '슈퍼투키' 김경태(21·신한은행)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 싱은 김경태에 대해 "리듬감이 좋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퍼트를 하는 것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경험만 쌓이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 싱은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10퍼트 안에 있는 버디 퍼트를 4-5차례 놓치는 바람에 타수를 더 줄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기가 끝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바로 연습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했다. 일부 갤러리의 휴대전화 벨 소리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던 싱은 "한국에서는 갤러리가 휴대전화를 경기장에 가져와도 되는 모양"이라며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경기에 큰 영향은 없었다. 한국 상황에 맞춰야겠다"며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선배들과 함께 경기를 치른 김경태는 "퍼트, 쇼트게임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배웠다"면서 "무엇보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타이를 방에 나신 양용은은 "이전에 최경주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아 싱을 알고 있었다. 경기를 하면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눴는데 편이 너무 어렵게 풀려 있다며 싱이 힘을 주었다"고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합평다이내스티CC 클럽하우스

매주 주말 '문화·예술 공간' 변신

호남 최초 양산디 골프장 합평다이내스티CC가 매주 주말 클럽하우스를 음악회장으로 운영한다. (사진) 합평다이내스티CC는 매주 주말 클럽하우스에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연주자들을 초청, 현악 3중주 앙상블의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연주회는 매주 주말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클럽하우스

스 레스토랑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내장객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식사 및 대화를 즐길 수 있다.

이준희 대표는 "가을철을 맞아 음악연주회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공예품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해 문화와 예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